현불 논단

경찰권, 국가 권위의 상징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폭력범죄 높은 곳이 경찰지구대
주취자가 지구대서 행패 부려도
문제없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가

주취자에 관대한 사회 정서 '문제'
투명하지 못한 경찰들도 반성해야

경찰권 무너지면 국가도 흔들려
法,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부패·법 집행 않는 경찰은 '무능'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곳 중 한 곳이 경찰지구대라면, 혹은 무질서범죄가 다발하는 곳 중의 한곳이 다중집회와 시위현장이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죽창과 쇠파이프로 경찰을 가격해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

이와는 반대로 몇 년 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현직 시장이 1인 시위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지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 시위대가 WTO총회가 열렸던 미국으로 원정시위를 갔지만 미국 경찰이 정한 '경찰선(Police Line)'을 단 한 사람, 단 한 발자국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은 과연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

경찰권은 바로서야 한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운영목표 또는 이념을 범죄통제(Crime Control)에 두기도 하여 그야말로 형사사법의 절차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여 생산성(Productiv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강조되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Conveyer Belt)모형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결과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 모형으로서 생산성과 효율성보다는 과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일종의 장애물경주 모형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면 민주적,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추구하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시민의 인권이 신장된 현대사회에서는 비교적 적법절차가 우선적 가치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상반된 가치 같기도 한 두 모형이 결코 갈등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한 법집행만이 법과 그 법의 집행에 대한 정당성이 담보되고 그래야 시민 또한 법을 준수하여 결국 형사사법제도 전체가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법절차에 못지않은 전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실하고 공정한 법집행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법은 확실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서 생긴 불평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풍자 아닌 풍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권이 왜 확실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무너졌다고까지 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경찰 자신들의 문제로서 과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정권에 동조하여 경찰권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법을 확실하게 집행하지 못한, 즉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라는 더 큰 합목적성이 그 수단과 절차 및 방법을 압도하였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음주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한 문화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경찰지구대 등에서의 주취폭력에 대한 관대함과 사법심판에서의 주취자 감경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정통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유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강호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주취자 감경에 대한 법 감정도 바뀌고 실제로 사법운용에서도 더 이상 주취가 감경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권은 국가권위의 상징이다. 국가권위가 흔들리면 국권도 흔들린다. 법은 확실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공정하게 집행될 때 그 정통성을 부여받는다. 경찰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경찰은 더 문제지만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경찰도 무능한 경찰이다. 경찰권이 무너지면 국가권위는 물론이고 국가권력도 무너진다. 더 이상 경찰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社說

종헌 위상 걸맞은 대탕평 고민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대탕평'을 중심으로 한 종단·공동체 화합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앞서 33·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추진했던 미완의 과제 '부처님오신날 대사면'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한다. 지난해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와 자승 스님의 대사면 추진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은 종헌종법 절차 검토와 대중공의 결집에 미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종헌종법특위는 최종적으로 부칙을 통해 '멸빈자 사면 불가' 내용을 담은 종헌 제128조를 제한하는 종헌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본회의서는 종헌을 부칙으로 1회에 한해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종정 스님 교시만으로 종헌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문제는 종헌 개정을 통해 제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할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멸빈의 사유가 불경죄·4바라이죄 등이기 때문에 멸빈자에 대한 사면 허용이 승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제128조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안도 매끄럽진 않다. 종헌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사면 동의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종정 특권인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현재 조계종단이 바람직한 대탕평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과거 개정안으로는 종헌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대중공의를 모아 종헌 위상에 걸맞은 대탕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 4.3 추모 영산재 환영한다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제주 4.3사건을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 영산재를 봉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추념일 즈음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들도 게재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한다. 이 같은 계획들은 제주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1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면서 가시화 됐다.

유족회와 범국민위는 불교 차원의 추모·위령행사, 특별법 제정에 도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광화문서 진행되는 제주 4.3사건 추모행사에서 유족회 등이 요청한 위령·천도재를 영산재로 확대해 봉행하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언도 실무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조계종과 불교계가 앞서서 제주 4.3사건 추모 기념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4.3사건 당시 관음사 등 36개 사찰이 전소됐고, 16명의 스님이 총살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됐다. 엄혹했던 시절 국가 권력의 폭력은 죄없는 양민은 물론 출가 사문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영산재는 석가여래의 영취산 설법 현장을 현세에 재현해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 대표 의례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영산재를 봉행하겠다는 것은 당시 희생된 모든 고혼들을 천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해·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아직도 제주도는 당시 갈등이 남아있는 곳이다. 70주기를 맞아 펼쳐질 영산회상의 법문은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특별기고

미증유의 미소

선진 스님 보광선원 한주

새로운 한해가 시작 되었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둘 하늘부터 쳐다본다. 풍요와 빈곤은 작년 심은 선근(善根)만이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인과마저 초월한 세계가 있다. 무문관(無門關)이다. 화두에 불이 붙으면 인과도 윤회도 태워버리고 오직 '일념돈탕진(一念頓蕩盡)'이다. 백겁에 찌들어 있어도 몰록 깨치는 순간에는 성냥개비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하더이다. 벌써 동안거(冬安居)도 반철이 다가온다. 출가사문(出家沙門)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비구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와 묘유(妙有)가 숨어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요즘 무문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번 들어가면 3개월 또는 6개월 한숨 크게 쉬면 6년을 나오질 않고 생활한다. 2평도 채 안되는 공간에서 삼라만상을 삼키고 토해낸다. 때론 수미산(須彌山)에 올랐다가 항하사(恒河沙)에 매몰되기도 한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 보겠는가! 철저히 한 뜻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간화선(看話禪)이 주는 최고의 배려이자 선물이다. 그래서 무문관은 간화선의 보림굴(寶林窟)이요, 간화선의 본가이다. 이곳에서 방선죽비를 찾고 걸망을 멘다는 것은 납자가 아니다.

진정 무문관은 말과 소리와 의식마저 끊어진 곳이다. 앞산에 공기가 차가우면 새벽을 알린다. 햇살이 남중에 걸리면 점심공양 시간이다. 문밖에 짖어대던 새들마저 조용해지고 상경이 깊어지면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촌각과 촌음을 태우며 숨 쉴 시간마저 부족하다. 이곳은 결재와 해제가 없다. 오직 결사만 있을 뿐이다. 정각(正覺)을 얻어 아뇩다라를 만나면 진정 해제이다.

무문관!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인가. 얼마나 체득해 보고 싶은 곳인가. 누구나 초발심 때에는 수미산도 뛰어 넘는다고 했는데…. 출가 장부라면 한번쯤 도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기가 모자랐는지 정작 문 앞에도 가보질 못했다. 업산(業山)에 살다보니 네 번의 강산이 지나갔다. 윤회에 들기 전에 꼭 한번 가볼 터이다.

도반 스님인 보광선원 주지 황운 스님이 얼마 전 9년 결사를 회향했다. 시절 인연을 만나기 위해 소림굴에서 9년을 면벽하신 초조의 성사(聖師)처럼 힘든 시간을 감인대(堪忍待)하며 3천일기도를 회향했다. 주지 소임도 힘들 터인데 한 치의 타성도 불허하며 만고의 진리를 위해 천일의 가피를 찾아 뚜벅 뚜벅 25시의 삶을 걸어온 것이다.

간밤에는 초발심 때 연비한 지리산 도반 스님이 전화가 왔다. 미얀마를 순례하며 한철 정진하자고 했는데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얼마나 사무치도록 부처님께 귀의했으면 두 손가락을 태울 수 있을까. 그 열정과 숭고함을 나는 존경한다.

이 시대 두타제일존자들이여! 정녕 그대들은 매일같이 마장을 만나고 유나를 만나고 선지식을 만났소이다. 죽비소리에 수백 번 정각을 이룬 소감이 어떻소이까. 허공계의 유정무정들도 나유타(那由他, 1000억)만큼 기쁘할 것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